

司牧研究

제42집 (2019/여름)

교회법 편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司牧研究』는 ‘계광학술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펴냅니다.

발 간 사

‘밥이 됩시다’ ‘제가 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문구를 10년 전에 주님 곁으로 가신 김수환 추기경은 크리스마스 카드에 즐겨 쓰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위치가 낮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 사람은 내 밥이야!’라고 하며 갑질하는 사회에 대한 일갈(一喝)이셨으며,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의 요청이셨습니다. 특히 사목현장의 사목자에게는 자기는 비우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신자들을 찾아가는 ‘양 냄새나는 목자’로서 거듭나야 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는 김수환 추기경님 선종 10주년입니다.

이렇게 뜻 깊은 2019년 3월에 새롭게 ‘사목연구소 소장’으로 선출된 윤종식 티모테오 신부가 인사드립니다. 2년 동안 ‘사목연구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수고를 하신 이동호 프란치스코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름호는 교회법 특집으로 세 편의 교회법 연구논문과 두 편의 투고 논문, 그리고 한 편의 번역문이 실렸습니다. 먼저, 교회법 관련 세 편의 논문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투고 논문, 마지막으로 장면 박사의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수원가톨릭대학교 교회법 교수인 김의태 신부는 ‘교황청 내사원’(Paenitentieria Apostolica)에서 행하는 내적 법정(內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자비 법정으로서의 교황청 내사원의 특징, 역사, 조직, 관할권 등을 설명합니다. 내사원이 사도좌에 유보된 죄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용서가 가능한 죄라면 어떤 절차와 방법으

로 이루어지는지 알려주며, 구체적인 사례를 연구하여 밝혀주고 있습니다. 곧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가 교회법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내적 법정이라는 개념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광주대교구 소속으로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교수인 안세환 신부는 ‘세례와 다른 성사들과의 관계’를 죽을 위험 중에 있을 때 세례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법적 과정과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에는 ‘대세’(代洗)라고 했다가 ‘비상 세례’, 지금은 ‘임종 세례’로 불리는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사람의 세례와 그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성사들과의 관계성을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기준으로 교회법적 관점에서 풀어줍니다. 초기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행했던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라고 하는 세례-견진-성체성사의 단일성의 관점에서 성사들을 거행하여 온전한 ‘그리스도교 신자’(Christifidelis)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서초동 성당 부주임으로 사목하면서 서울대교구 법원 재판관인 전두병 신부는 ‘20세기 교회 문헌에서 말하는 평신도의 모습’을 재조명하였습니다. 1917년 교회법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1983년 교회법전 등에서 언급하는 평신도에 대한 정의와 역할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점진적 발전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917년 교회법전에서 단지 성직자나 수도자가 아니라는 부정적인 정의로만 언급되는 평신도의 지위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세례로 인하여 일반 사제직을 수행하며, 하느님 백성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직, 그리고 왕직에 참여한다고 정의되었습니다. 1983년 교회법전을 이러한 공의회의 결정을 이어받아 교회법적인 위치를 확인시켜 주었으며, 1988년 사도적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에 와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신도의 위치와 역할을 언급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곧, 평신도에 관한 사교의 변화가 ‘수동적 주체’에서 ‘능동적 주체’로 바뀌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가톨릭대학교 영성신학 교수인 민범식 신부는 ‘교구 사제의 영적 삶을 위한 사제적 식별’이라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주제를 연구하였습니다.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로마 12,2)하는 ‘영적 식별’의 삶으로 신앙인은 초대받았고 전제합니다. 거기에 사제에게 있어서 영적 식별은 사제의 직무 안에서 행하게 되는 영적 식별입니다. 이를 ‘사제적 식별’이라 부르며 대사제 그리스도와 사제 본인과의 존재론적 일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제직’ ‘목자적 사랑’ ‘그리스도께 동화됨’ 등을 사제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교구 사제가 어렵게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사제적 식별을 기준, 내용, 목적 순서로 소개하고 밝혀줍니다.

다섯 번째로 가톨릭대학교 동양철학 교수인 박문성 신부는 지난 호에서 다루었던 ‘아그니호트라를 통한 세계 창출과정’에 이어 ‘아그니호트라 제식과 현공용 우유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시역(試譯)과 역주를 하였습니다. ‘알다’를 의미하는 동사 어근 ‘비드’로부터 파생된 명사 베다는 고대인도의 종교·철학뿐만 아니라 각종 제식(祭式)과 관련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전의 총칭입니다. 베다는 일찍부터 다수의 학파로 분리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야주르베다』와 관련된 두 학파, 즉 ‘흑야주르베다학파’와 ‘백야주르베다학파’가 있습니다. 『마이트라야니 상히타』는 흑야주르베다 학파에 속하는 경전인데, 제1권 제8장에는 고대인도 제식의 중심인 아그니호트라와 관련된 규정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식에 있어서 희생제물(가축)이 제화(祭火, 아그니)에 들어가는 과정과 상징적 의미를 설명하고, 현공용 우유(태양의 정액)를 어떻게 다루며 그 과정의 의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해방 이후 국무총리, 부통령을 역임한 정치인이며 깊은 신앙을 지닌 장면 요한 박사(1899~1966)는 사제들에게는 전 천교구장인 ‘장익 주교’의 부친으로 더 유명합니다. 장익 주교는 부친인 장면 요한 박사가 1958년에 출판된 “*World Crisis and the Catholic*”라는 책에 게재한 ‘The Christian Contribution to the Social and Political Life of Non-Christian Country in the Present World Situation’이라는 글을 사목연구소에 보내주었습니다. 장면 박사는 비그리스도교 국가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사회 정치 생활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깊이 고뇌하여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1950년대와 현재의 세계 정세는 판이하게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언제 어디에서나 갖추어야 하는 태도와 내적 자세는 변하지 않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교황성하의 국제적인 역할, 엄격히 그리스도교 원칙에 따른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 생활의 강조, 그리고 가톨릭 정치가(statesman)와 정치인(politician)이 그리스도교 원칙들이 밝혀주는 가르침을 정치적으로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인 도움 등은 그 방법은 당시와는 다르지만 그 인식은 지금의 그리스도인을 성찰로 이끌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호가 나오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저와 함께 새롭게 사목연구소를 운영하는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연구소의 총무 김상우 신부, 기금운영 김범연 신부, 심사 박정우 신부, 편집 최대환 신부, 학술 허석훈 신부, 감사 이동호 신부입니다.

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사목연구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후원,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장
윤종식 신부

司牧研究 제42집 — 교회법 편 2019 여름

차 례

발간사/ 3	윤종식
 [특집] 교회법	
교황청 내사원(Paenitentieria Apostolica)에 대한 연구 — 특징, 역사, 조직, 관할권, 관련 사례 연구/ 9	김의태
세례와 다른 성사들과의 관계 — 죽을 위험 중에 있을 때 세례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47	안세환
20세기 교회 문헌에서의 평신도의 모습/ 93	전두병
 [논단]	
교구 사제의 영적 삶을 위한 사제적 식별/ 115	민범식
『마이트라야니 상히타』(Maitrāyaṇī Saṃhitā) 1.8.1~3에 대한 번역노트-II/ 147	박문성
 [번역]	
오늘날의 세계 정세에서 비그리스도교 국가의 사회 정치 생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기여/ 164	장면, 권정에 옮김
 [부록]/ 179	
I.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정관/ 181	
II.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계광학술연구기금 운영 규정/ 187	
III.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학술지 편집 및 심의 규정/ 190	
IV.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연구위원 명단/ 192	
V.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정기 학술 심포지엄 연보/ 194	
司牧研究 총목차(1994-2018 겨울)/ 196	

Contents

Editorial Preface/ 3	<i>Rev. Yun, Jungsik, S.T.D.</i>
[Special Issue] Canon Law	
A Canonical study on Apostolic Penitentiary: features, history, composition, competence, related cases/ 9	<i>Rev. Kim, Euitae, J.C.D.</i>
The Relationship between Baptism and Other Sacraments : Focused on those who were baptized at the risk of death/ 47	<i>Rev. Ahn, Sehwan, J.C.D.</i>
The appearance of laity in the church literature of the 20 th century/ 93	<i>Rev. Jeon, Doobyung, J.C.L.</i>
[Articles]	
Priestly discernment for the spiritual life of the diocesan priest/ 115	<i>Rev. Min, Bumsik, S.T.D.</i>
Translation Notes on the <i>Maitrāyaṇī Saṃhitā</i> 1.8.1~3-Ⅱ/ 147	<i>Rev. Park, Moonseong, Ph.D.</i>
[Translation]	
The Christian Contribution to the Social and Political Life of Non-Christian Country in the Present World Situation/ 164	<i>Chang, Myun tr. by Kwon, Jungae</i>
[Appendixes]/ 179	